# 대전투데이

의료광고심의 190802-중-97491
보문산 생태요양병원 042) 222-5567
암 재활 암 면역 영양식단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546호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해변, 굴삭기로 파헤쳐 논란

## 해수욕장 해변 길이 약 150m · 높이 1.3m 무단으로 파헤쳐 … 태안군청 · 만리포관광협회, 해결엔 '뒷짐'

대천해수욕장 · 변산해수욕장과 더불어 서해안의 3대해수욕장의 하나로 손꼽히며 관광객들의 큰 명성을얻고 있는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해변이 최근 수차례 굴삭기로 마구 파헤쳐 공유수면 법을 위반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00수산 대표가 바다에서 수족관을연결하는 물 공급 파이프가 막히자 수족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굴삭기로 파이프가 막힌 곳을 찾기 위해 만리포 해수욕장을 해변을 마구 파헤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수욕장 입구에서 길이 약 150m 높이는 1.3m 가량을 무단으로 파헤친 후 파헤친 모래로 평탄작업을 했지만 뻘과 모래가 섞인 잔량을 쌓아 놓아 밀물과 썰물로 인해 바닷물을 검게 오염 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요구한 제보자 A씨는 태안군청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나도 그럼 굴삭기로 바다를 마음대로 파헤쳐도 되냐"고 묻자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한 결과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없다. 횟집 수족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파고서 원상복귀 시켜 놓으면 면죄부를 주도록 된 조례가 있다"면서 "지금 바로 현장을 방문해 불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면죄부를 줄 사안인지 파악해 업무에 반영 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법에는 장비를 동원해 공유수면에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00수산 대표의 행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익추구 행위를 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미흡한 지도단속을 꼬집고 있다.

만리포 해수욕장 해변은 길이는 약 2.5㎞, 폭 약 270m에 모래가 가늘고 부드러운 해수욕으로 소문나 있지만, 현재 모래 유실이 심해 인위적으로 모래 공급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황이다.

결국 태안군과 만리포관광협회가 주민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장기간 수수방관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면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태안 =김정환기자

## 현행 거리두기 · 5인 이상 모임 금지 다시 3주 연장

### 김 총리 "백신 효과, 전국 곳곳서 확인… AZ 안전성 · 효과성 검증, 160여개국 사용"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24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위중증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해주고 있는 국민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 날까지 '참여방역'으로 함께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전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7월 전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다음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60세부터 74세까지 국민 중, 어제까지 절반 넘게 접종을 예약해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신의 효과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달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는 23명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친 한 명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는 확진자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이미 검증돼 전 세계 16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님도, 저도, 방역당국 관계자들도 이 백신을 접종했다. 정부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우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께서도 안심하고 접종을 예약해주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백신 물량은 충분하다"며 "하지만, 상반기 1300만명 이상 접종을 토대로 한 집단면역 달성은 국민들께서 동참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신을 왜 맞아야 하는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백신접종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 정부와 함께, 더 자유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태선 기자

## 60~74세 예방접종 사전예약자 500만명 넘어…27일부터 접종

6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완료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22일부터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1차 접종을재개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60~7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은 0시 기준으로 총 505만3000명이 예약해 500만명을 넘어섰다"며 "예약자들은 27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접종 대상자 중 예약률로 계산하면 53.3%에 해당한다. 이중 70~74세 예약률은 64.3%, 65~69세는 57.3%, 60~64세는 43.1%이 예약했다.

이밖에 만성호흡기 질환자와 유치원 · 어린이 집 · 초등학교 1 · 2학년 교사 · 돌봄인력 대상자는 67.7%가 예약을 완료했다.

지난 6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 사전예약은 내달 3일까지 가능하다. 예약방법은 휴대전화나 PC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에 접속해 예약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이용해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변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지난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회필수인력,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장애인 및 노인 돌봄종사자, 만성 신장 질환자도 내달 3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22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을 재개한다.

추진단은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중이며, 4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에 대한 2차 접종이 5월 21일경 대부분 마무리된다. 2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에 집중한다.

추진단은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 공급계획을 지난주 지자체에 통지했다. 현재 지자체(읍 · 면 · 동)에선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1차 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지정된 일자에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받으면 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1차 접종은 6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한편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8000회분은 오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 정부 "미국 기술-한국 생산력 결합…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백신 파트너십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할 전문가그룹을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23일 한미 백신 협력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백신 파트너십은 미국의 우수한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합해져 장기적인 대량 생산기지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이 일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社)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는 등 정상회담 기간 4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을 자체 개발했거나 생산을 맡은 업체는 없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파트너십으로 양국이 글로벌 보건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이 백신 부족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발전하는 데에도 새로운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우수한 생산 역량과 인적 자원, 품질 관리 수준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국내 공급도 더욱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후속 조치에 힘을 쏟겠다면서 실무 논의 기구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도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문가그룹은 양국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백신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생산이나 연구 개발, 원부자재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주헌 팀장은 "각국에서 몇 명이 참여하고, 공무원의 경우 어느 직급이 참여할지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완전한 실무급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니어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환 기자

# "지방정부 역할강화 · 재정분권 촉구"

## 대한민국 시 · 도지사協,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 위해 한목소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5월 21일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총회를 주재한 가운데,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 · 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할 것,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 · 도지사들에게 요청하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지 1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김정환기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코로나19 대응부서 직원 격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 대응 업무에 매진하는 충남도 감염병관리과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 5 · 18민주유공자예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 · 태안)이 핵심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21일 본회를 통과 됐다.

21일 본회에서 1번으로 통과된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 · 18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하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활동이 가능해 짐으로 41년간의 홀대에서 벗어 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당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5 · 18 단체 회원분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 붙혔다.

서산=김정한기자

# '계좌대여 알선 · 중개 처벌법' 본회의 통과

##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 사진)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를 모집해 불법 대여계좌로 유인하는 중개 · 알선 행위의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선물 · 옵션과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거금,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등 진입장벽을 두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단돈 수십만 원의 증거금만으로 수억원 대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시키는 불법 계좌대여 행위가 발생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 · 알선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는 관련 범죄 및 피해 발생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 계좌대여 업체가 사설거래소 역할을 하거나, 실거래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확실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아산시의회, 오는25일 '제4회 의원회의'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2021년 제4회 의원회의를 오는 25일 10시 의장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안건으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기획예산과) ▲아산코미디홀 운영방식 변경 추진(문화관광과)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도로과) ▲아산시 청년 · 청소년 조기중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보건행정과) 등 4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다.

또한, 자체 협의사항으로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 실증실험 방안 만든다

##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위해 농어촌지역 대상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실험 방안을 만든다.

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본소득제 효과검증과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사전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아산1 · 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김득응(천안1 · 더불어민주당) · 김명숙(청양 · 더불어민주당) · 양금봉(서천2 · 더불어민주당) · 윤철상(천안5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충남도 관계부서와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적농업 중부지원센터, 마을학교, 언론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관 전문가까지 모두 18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회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모임 간사인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기대효과와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연구모임을 통해 기본소득이 향후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확인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여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입 전 실험과 검증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도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지역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릴레이 동참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이 21일 금산군의회 2층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일본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2051년까지 30년에 걸쳐 해양방류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기적이고 반인류적인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력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계룡시의회 윤재은 의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안기전 의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기전 의장은 "이번 방류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주변국 안전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반인류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이정복기자

#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체계 구축 위한 정책 간담회

##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등 논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주최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가 20일 의회 2층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최옥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미래의 꿈나무인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센터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구 각 지역아동센터 대표와 인미동 의원(사회도시위원장),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봉식 의원, 김연풍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 듣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최옥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지역아동센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건위원장,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비롯 관련부서 공무원 등 참여

## '노은시장 수산부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21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은시장 수산부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사안들은 수산부류와 관련된 저울눈속임 행태, 원산지 및 단위가격 미표시 등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영업 병폐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수산부류 상인들과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찬술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저울눈속임, 원산지 및 단위가격 미표시 등의 병폐로 인하여 노은도매시장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며 "우리 노은도매시장이 다시금 시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 개선에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식물성 대체육' 개발 스타트업 '디보션 푸드' 방문

## 강훈식 의원, 경기 안성에 위치한 디보션푸드 방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장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20일 오후 경기 안성에 위치한 디보션푸드를 방문해 대표와 임직원들을 만났다.

디보션푸드는 2018년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박형수 대표(29)는 "데스토랑 쉐프로 일하던 중 축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이 생겼다"며 "분자요리 전문가인 이용민 이사(29)와 의기투합해 대체육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체육 시장은 '17년 4조8628억원 규모에서 '25년 8조6843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디보션푸드는 지난해 말 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라운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7월까지 대량 생산 시설을 확보한 뒤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정부 지원이 커졌고, 과거보다 창업 환경이 좋아졌다"며 "초기 자본금보다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용민 이사는 "식물성 대체육의 성장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출코드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대체육 수출코드를 만들었다고 들었다. 앞으로 시장이 커질텐데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창의적인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에게서 희망을 본다"며 "기존 산업과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화를 이뤄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지원 사항을 국회 차원에서 미리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문대통령 지지율 34% '반등'…부정평가 58%"

## (한국갤럽) 직무수행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1주만에 반등하며 3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과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평가도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58%였다.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24%포인트로 줄었다

문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3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외교/국제 관계'(4%), '복지 확대', 전 정권보다 낫다'(이상 3%) 등을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코로나19 대처 미흡'(9%), '인사(人事) 문제',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이상 5%)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 빠진 26% 나타났다.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0%에 달했다.

daejeontoday.com

# 한미,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 연구협력 확대… MOU 4건 체결

## 양국 보건장관 회담도 개최… 보건의료협력 MOU 개정 추진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위탁생산에 이어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및 양국 보건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및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 정부 및 기업간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해 전세계에 공급하게 된다.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사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모더나 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 정부는 모더나 사의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한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모더나 사의 한국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 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바백스 사 및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이며, 현재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독감 결합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이용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 · 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미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방문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과 사전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전세계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의 신속한 구성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면담은 미 보건부 장관 취임 후 첫 보건부 장관 간 대면 면담으로써 한미 양국의 긴밀한 보건 의료분야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보건안보 대응 기여 및 보건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노력도 확대된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참여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했고, 한국은 2025년까지 2억 달러를 신규로 기여하기로 했다.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는 국제 공중보건위기를 예방 · 탐지 · 대응하기 위해 2014년 발족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70개 회원국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을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보건안보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창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체결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는 2003년 7월 처음 체결됐으며, 2009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현재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 모자보건 등 6개 분야가 포함돼 있는데, 신종 감염병 대비 백신과의 약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 10개 분야를 추가해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권 장관은 한국 바이오산업 · 생명과학의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한-미 생명과학인협회 회원들도 만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글로벌 자산운용사 칼라일그룹의 이규성 대표로부터 세계 시장 현황과 경제 전망을 듣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양국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양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을 통한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바이오 기술 벤처에서 시작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더나 · 노바백스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부는 원부자재 기업 육성 및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거쳐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김홍장 당진시장, 탄소중립 실천 특별 세션에서 정의로운 전환 발표

### 기후위기 극복 2050 탄소중립 동참

김홍장 당진시장이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 세션'에 참석해 국내 243개 모든 지자체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이번 행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의 하나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며,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장,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정의선 대한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홍장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주제로 토론문 발표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피력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을 늘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한편 당진시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저지를 시작으로 지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그린뉴딜 시민기획단 구성을 통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해 온 바 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 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 한반도 비핵화 · 항구적 평화 정착위해 외교 · 대화가 필수 재확인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 · 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으로써,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 · 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 예산군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이나 청원, 민원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 장 이승구 부의장 박응수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위 원 장 강선구 | 위 원 장 전용구 | 위 원 장 임애민 |
| 부위원장 김봉현 | 부위원장 정완진 | 부위원장 이상우 |
| 위 원 김태금 | 위 원 김만겸 | 위 원 강선구 |
| 이상우 | 김봉현 | 박응수 |
| 정완진 | 김태금 | 홍원표 |

예 산 군 의 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http://www.councilyesan.go.kr)
전화(041) 339-7084 FAX(041) 339-7099

## ●동 정●●●

###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24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전자유학년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 팁스타운 개관식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24일 오후 2시 평촌동 일원에서 열리는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하며 오후 3시 20분 충남대학교 내에 준공한 '팁스타운 개관식'에 참석하고 오후 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에 참석.

### 편백나무 수액 기탁식

황인호 동구청장= 24일 오후 4시 30분 구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동방내추럴 편백나무 수액 기탁식에 참석.

### 코로나19 극복 챌린지 캠페인

장종태 서구청장= 24일 오전 8시 탄방동 한우리아파트에서 열리는 코로나19 극복 챌린지 캠페인에 참석.

### 주민자치회 발대식

정용래 유성구청장= 24일 오후 2시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유성구 원신흥동 2기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

### 식료품꾸러미 후원식

박정현 대덕구청장= 24일 오전 11시 30분 청렴관에서 열리는 골프존 문화재단 식료품꾸러미 후원식에 참석.

#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동참

## 市, 국내 243개 지자체 공동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 실현 원동력 될 것"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24일 온라인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실천연대)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구체적 실천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연대('20.7 발족)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의 2050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고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1월 2050년 순(純)배출량 0(zero) 달성을 목표로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의 온실가스 감축 4개 부문과 탄소흡수원인 도시숲 조성 1개 부문으로 구성된 4+1 핵심전략을 포함하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천개의 도시숲 조성과 친환경차 도입 확대, 공공부분 그린리모델링 등 탄소중립 정책들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힘든 여정이 될 것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의 약속은 대전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 행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의 하나로 5월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며 국내 243개 모든 지자체들과 함께 참여한다.

김태선 기자

#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중구, 당사자가 임대료 ·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 신고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언택트'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 대회, 오프닝 행사 개최

## 6월 6일까지 성공적 대회 추진 위한 걷기 세레모니 등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6월 6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언택트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 대회' 오프닝 행사를 21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언택트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GPS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 코스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미니코스 ▲5km 건강코스, 총 4개 코스로 참가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느 한 지역에 모이지 않고 동구 내 전 지역에서 마라톤 참여가 가능하며 완주 후 인증(GPS를 기반으로 한 앱 캡처 사진)하면 인증 메달과 함께 기록증을 받게 된다.

구는 대회 첫날인 21일,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황인호 동구청장, 박민자 동구의회의장,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지난 2019년 마라톤 대회 개최 장소인 동구 신하동 공공용지 일원에서 오프닝 세레모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오프닝 행사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 게이트를 설치해 온도 체크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대회 개최 첫날을 기념해 대청호 벚꽃길에 조성된 약 1.4km의 데크길을 걷는 세레모니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황인호 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면 언택트 방식으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이번 마라톤 대회 개최로 코로나 19 등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언택트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현장 개최가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약 2천여 명이 참가 신청해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태선기자

# '걱정말아요 대덕' 토크콘서트 열려

## 초등생 부모와 '우리아이 용돈교육' 소통 토크 나눠

대덕구(박정현 구청장)는 지난 22일 송촌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에서 '걱정말아요 대덕'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2018년 시작돼 10회째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구청장과 주민들의 격식 없는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주제는 '내 아이 경제교육의 첫걸음, 용돈 교육의 마법'으로, 1부에는 경제교육 전문강사의 '우리아이 용돈교육'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전국 최초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용돈수당'을 통한 어린이 경제교육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아이를 키움에 있어 경제에 관한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구청장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자리여서 더욱 좋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어린이 용돈수당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대덕구의 한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인 경제 관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시작된 '걱정말아요 대덕' 토크 콘서트는 올해에도 다양한 주제로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 행복팜(farm) 프리마켓 운영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7월 4일까지 매주 토, 일 유성온천공원(워터스크린 일원)에서 상반기 행복팜(farm) 프리마켓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팜 프리마켓은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인식에 관한 신뢰를 형성하는 민-관 협력 도시형 직거래 장터이다.

올해는 15개 팀이 참여해 로컬푸드 판매와 함께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합쳐진 이색적인 장터를 선보이며, 유성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장터 홍보 및 이벤트 방송도 진행된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 중요성 인식 제고에 나선다.

김태선 기자

# 송강복지관 아동권리위원회 발대식

송강사회복지관(관장 김영미)에서는 지난 21일 지역 아동 25명과 함께 아동권리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아동의 권리를 찾아 떠나는 보물찾기원정대" 라는 주제로 지역의 아동들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기본교육에 참여했고, 지역 안에서 아동의 권리인식증진을 위한 아동 권리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권리활동에 대해 직접 계획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김영미 관장은 "보물찾기 원정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마음안에서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고 했다.

송병배기자

### 시설公 무지개복지공장

# 코로나블루 극복 위한 심리재활 서비스 제공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무지개복지공장은 5월 21일부터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장애인 심리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심리재활 서비스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무기력증 등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주간보호실 이용 장애인의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리재활 서비스는 개인상담 및 미술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 · 정서적 문제나 욕구 등을 파악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분노나 불안과 같은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

공단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심리재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언어심리상담센터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지개복지공장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의 심리 ·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정복 기자

# 대전사랑시민협의회 300만원 장학금 지급

##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에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지난 21일 대전사랑시민협의회(회장 한재득)의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6명에게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대전지역 NGO 협의체로서 애향심 고취 사업,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더불어 사는 도시 만들기, 시민의 화합을 위한 사업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 통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재득 회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비행을 저질렀지만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고자 장학금을 기증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 지원 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에서는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관내 NGO 단체와 협력해 대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 서구, 마을교육공동체 공감 원탁회의 개최

#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의제 발굴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21일 청사 장태산실에서 '서구 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마을교육공동체 공감토론'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마을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활동가 등 40여 명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개회식, 마음 열기, 주제토의, 마무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방적인 회의가 아닌 토론 분야별로 7개 원탁에서 사업에 담을 핵심가치 나누기 등 기초의견을 나눈 후 모둠별 회의 및 발표, 의견종합 토의, 공감 우선순위 투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의제를 발굴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나 지향점, 우리지역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2022년 혁신지구 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업발굴 등 주제와 관련한 내용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장종태 청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발전적 방안을 서구 지역의 특색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마련에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는 새로운 마을교육공동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선 기자

###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 충남대병원 '1등급' 받아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윤환중)은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음 실시한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표준화와 건강보험 · 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위해 처음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의원급 이상 455기관(상급종합병원 39기관, 종합병원 84기관, 병원 177기관, 정신병원 100기관, 의원 55기관)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입 ·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재원(퇴원)환자의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 총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윤환중 원장은 "충남대학교병원은 각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동 정 ● ● ●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수= 24일 오전 8시 4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 세종 지역시민단체 씨알사랑 연동면 환경지킴이 첨병 역할

세종시 지역시민단체인 씨알사랑(회장 한미희)이 연동면 환경지킴이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연동면은 지난 22일 씨알사랑 회원 15명이 연동면 예양리 미호천변 일대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씨알사랑은 지난 2015년 결성된 지역시민단체로, 20여 명의 회원들이 회비를 통해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과 어르신들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씨알사랑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하천변에 쌓인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연동면은 올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선발해 5월 말부터 9월까지 방치 쓰레기 등 오염물질 수거를 통해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황미라 연동면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높은 관심을 통해 연동면 지역이 깨끗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연동면 만들기에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6기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 첫 회의

충남도는 21일 도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한 제6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 위원들과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6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3개 분과 157명으로 출범했으며, 기후환경분과는 도내 대학교수, 연구원, 환경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 구본학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보고, 자문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와 역점과제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기후체제 탄소중립 선도적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자연생태계 복원 및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푸른 대기환경 조성 및 도민 환경피해 보건서비스 강화 등을 보고했다.

또 환경 안전 · 피해 관리 강화, 자원순환 체계 강화, 안전한 물 공급 및 체계적인 유역관리를 통한 물 복지 실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 추진할 정책과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기후환경국의 주요 환경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충남도, 기재부에 '충남형 뉴딜사업' 등 15개 사업 지원 요청

# 균형발전 · 지역활성화 사업 정부예산 반영 건의

충남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21일 재정당국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사업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편성 운영 계획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기재부는 지역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각 시 · 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8년 만에 개편하여 충남을 찾았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충남형 뉴딜사업' 등 15개 사업 608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군비행장 민항 건설(15억 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91〃) △충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5〃) △국도 77호 고남~창기 구간 확장(150〃) △차량용 반도체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구축(30〃)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11〃) 등의 사업을 건의했다.

지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50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5개 사업 총 5534억 원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3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161〃) 등의 반영을 요청했다.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을 선도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대체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50억 원)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30〃) 등도 건의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도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되도록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단계별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현안사업은 6~8월 기재부 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 은가비어린이집 아나바다 성금 기탁

은가비국공립어린이집이 원생들의 교육과 나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은가비어린이집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세종시 보듬로 범지기마을 11단지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원생들이 경제교육 차원에서 진행한 시장놀이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아나바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됐다.

이정은 은가비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이 아나바다 캠페인을 통해 물건의 소중함과 사고파는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또한 조성된 성금을 세종지역 도움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에게 전달해 우리 어린이집 원생들이 친구를 돕는 배려심과 나눔을 배울 수 있어 뜻 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세종시, 아름다운 우리말 가꿀 한글사랑위원회 첫발

### 제1기 한글사랑위원회 탄생… 한글 전문가 · 시민 등 15명 구성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공언어 속 한글의 의미를 되새길 한글사랑위원회가 탄생했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기관 · 단체별 전문가 추천, 시민위원 공개모집 등 절차를 거쳐 '제1기 한글사랑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글사랑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한글 진흥정책과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제1기 위원회에는 당연직인 이홍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포함해 전문가 위원으로 이순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황용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안병섭 고려대학교 한국학전공 교수 등이 구성됐다.

시민위원으로는 아나운서, 수필작가, 한국어 교사, 문해교육 강사 등 한글 · 국어 관련 다양한 경력 ·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시는 특히 제1기 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정체성에 알맞게 총 15명의 위원 중 시민위원 비중을 50%이상인 8명으로 확보했다.

제1기 한글사랑위원회의 첫 정례회의는 올 하반기 중 운영될 예정이며 위촉장 수여식, 위원장 호선 등 절차를 비롯해 공공언어 개선에 필요한 순화어 발굴 등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세종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이자 유일한 한글 진흥 전담부서를 신설,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글사랑도시 세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한글진흥담당(☎ 044-300-3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연동면에 위치한 용뎅이매운탕 황인백 대표(가운데)가 세종 나눔리더 55호에 가입했다. 참석자들이 인증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 연동면 용뎅이매운탕 황인백 대표

## 세종 나눔리더 55호 가입

세종사회복지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와 세종시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미라, 민간위원장 채용운)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세종시 연동면 용뎅이매운탕 식당에서 황미라 연동면장(공공위원장), 이경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황인백 나눔리더 55호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

연동면에서 용뎅이매운탕을 운영하는 황인백 나눔리더는 지난해 3월부터 용뎅이매운탕 사업자로 착한가게에 가입해 135만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개인이름으로 매월 15만원씩 총 6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황인백 대표는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황인백 사장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부나 봉사활동 참여가 어려웠는데 사랑의열매 정기후원을 통해 착한가게와 나눔리더로 인증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저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홍성군, 2020년 우수 DMO 성과평가 1위 수상

### ㈜행복한여행나눔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선도적 역할 수행

홍성군은 ㈜행복한여행나눔(대표 김영준)이 '2020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 성과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DMO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평가점수 89.78점을 기록, 2020년 선정된 17개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해 상장과 감사패를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DMO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 2021년 매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으로, 이번 평가는 DMO사업의 첫 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

㈜행복한여행나눔은 민 · 관 · 산 · 학 · 연을 '관광통'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머물러'라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육성하였으며, 군 거점 관광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관광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서계원 문화관광과장은 "DMO가 지역주민, 민간단체,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관광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2020년 우수 DMO 성과평가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DMO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 홍성군을 경쟁력있는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과평가결과 1위를 수상한 홍성군 DMO ㈜행복한여행나눔은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DMO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2년 연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은 홍성군 '청소년의 날' 행사

### 청소년 올바른 성장 지원 · 바람직한 청소년문화 육성

홍성군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22일 '제1회 청소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청소년의 활발한 활동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정한 청소년의 달에 맞춰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홍성군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군은 올해 첫 청소년의 날을 맞아 군청 여하정에서 지역 내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와 함께 청소년의 날 선포식, 청소년헌장 낭독 등 기념행사와 문화공연, 청소년동아리 부스체험 등을 운영했다.

오성환 교육체육과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유능한 자질, 진취적 기상 함양과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청소년의 날을 정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정책에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정도로만 여기며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정책의 소비자로서 스스로가 청소년 정책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명동상인회에서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명동거리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세종시, 아동학대 그만! 가정의 달 맞이 예방활동 강화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캠페인 · 안내활동 등 예방활동 집중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달 들어 2차례에 걸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각종 축제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 누리집 · 맘카페 등을 통한 신고절차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과 17일 진행한 아동학대예방교육에서는 ▲아동 인권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주요사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을 다루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올해는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교육도 병행하며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제99회 세종어린이 대축제 누리집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 영상을 게시했으며, 시 누리집, 시정소식지, 맘카페 등에 아동학대 신고유형과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또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공연을 개최하는 동시에, 오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발맞춰 아동학대 예방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와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다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박상돈 시장, 우기대비 안전대책 점검

## 우기 대비 재해복구현장 점검

박상돈 천안시장이 21일 재해복구 현장과 대규모사업장을 찾아 우기대비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우기 전 작년 8월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의 마무리 상황 점검과 대규모 사업장의 우기대비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박 시장은 작년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원성천과 태조산공원 재해복구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현황 등의 설명을 듣고, 6월 말까지 재해복구(기능복원)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지시했다.

이어 우기를 대비해 재해 취약 주요 사업장인 불당소하천정비사업, 원성동 도시침수예방사업, 유량~안서간 터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등의 현장을 찾아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현황에 대해 손수 점검하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공사 현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주문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호우피해를 겪은 주민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며 "지난해와 같은 호우피해를 또 다시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우기 전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여러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 천안시,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실시 '2021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통과

천안시는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1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도시와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 4년이 지난 61개 지자체의 최근 3년(2018~2020)간 평생교육 사업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천안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이번에 평가를 다시 받으며 재지정됐다.

시는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간 추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운영과 전담직원들의 적극적인 역량강화 활동, 배려계층(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 다양한 사업 추진, 2020 온라인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의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생학습 재지정으로 2023년까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 천안시의 평생교육 사업을 되돌아보고 진단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 정**

**국토교통부 방문**

박상돈 천안시장=24일 오전 10시 30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서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

## 천안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3개소 지정

###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지원 위해

천안시는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3개소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7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 · 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개소는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원장 김재일),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원장 이문수), 천안충무병원(원장 이지혜)이다.

3개소 전담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행위 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 등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16일 3개 의료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을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병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동학대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신속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23일 코로나 6명 추가 발생…온천, 음식점 관련 등

천안시에서 23일 코로나19 확진자 6명(천안#1,255 ~ #1,260)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날 확진자는 타지역 온천 집단발생 관련 2명, 감염경로 조사중 1명, 해외입국자 2명, 관내 음식점 집단발생 관련 1명 등이다.

이로써 천안시 확진자는 6명이 늘어나 1,260명이고, 이중 완치자는 7명이 늘어나 1,156명이며, 사망자는 7명이다. 격리 치료중인 확진자는 6명이 늘어나 97명로 증가했다.

천안#1255(70대, 성환읍) · #1257(70대, 원성2동)확진자는 타지역 온천 집단발생 관련이고, 천안#1256(10대, 일봉동)확진자는 감염경로 조사중(자발적 검사)이며, 천안#1258(20대, 성정1동) ~ #1259(10대미만, 부성2동) 확진자는 해외입국자(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이고, 천안#1260(20대, 아산시) 확진자는 관내 음식점 집단발생 관련이며, 22일 동남구 · 서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결과 22일 '양성'판정을 받아 병상배정중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자택 등 방역소독 예정이고, 접촉자와 이동동선은 현재 충청남도와 역학 조사 진행 중이다.

천안=김정환기자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 취약계층 온누리상품권 기부

천안시 성정2동은 한국마사회 천안지사(지사장 박성균)가 21일 천안시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300만원 상당)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천안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가구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했으며,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기부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전달식은 성정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박성균 한국마사회 천안지사장, 구제병 성정2동장, 최창호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주)아라리오, 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금 3천만 원 전달**

주식회사 아라리오(대표이사 김문수)가 지난 20일 천안시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후원금 3,0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김갑쇠)에 전달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지구와함께가게>를 통해 우유팩 2,000여장 수거** 천안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희자, 장민수, 최문환)가 <지구와함께가게> 사업을 통해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우유팩 1리터 2,084장(80.5kg)을 수거하고 천안시재활용선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810매로 교환했다. 교환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천안시 주거취약계층에 전달예정이다.

## 천안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성환읍 자원봉사 거점캠프' 개소

### 성환읍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

천안시자원봉사센터는 21일 성환읍 주민자치회가 성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성환읍 자원봉사 거점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 자원봉사 특화사업인 자원봉사 거점캠프는 각 읍면동의 특성에 어울리는 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운영으로 자원봉사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원성2동과 수신면 거점캠프 2개소에 이어 천안시의 3번째 거점캠프인 성환읍 자원봉사 거점캠프는 성환읍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환읍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됐다.

천안시는 자원봉사 거점캠프를 자원봉사 · 나눔활동의 전초기지이자 천안시자원봉사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문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자원봉사 상담 제공 및 지역 특색에 맞춘 프로그램과 성환지역 내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안병순 성환읍 주민자치회장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거점캠프 설치를 요청하게 됐다"며, "주민들과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원성2동과 수신면 자원봉사 거점캠프는 취약가구 반찬 나눔, 독거어르신 맞춤 지원,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면 마스크와 애착인형 제작 및 나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천안=이정복기자

##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치과병원 · 블루문드림과 업무협약

###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과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미원)는 지난 20일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병원장 문은수), 사단법인 블루문드림(이사장 문은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과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됐다.

각 기관은 위기(가능)청소년 발굴과 정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진료 편의 협조,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기회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원 센터장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해주신 문치과 병원과 블루문드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각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 전화상담 ·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만 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전화(1388/041-622-1388)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 충남중기청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가이드북' 제작 · 발간

### 초보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수출준비 및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시희, 이하 충남중기청)은 수출경험이 없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절차 및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풀어쓴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수출기업은 수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 및 마케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초보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과 더불어 수출에 대한 막연함으로 수출을 망설이게 된다.

총 28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북은 시장조사방법, 수출기반마련, 시장개척, 수출계약, 사후관리 등 수출 전반에 걸친 내용과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출지원제도를 초보기업이 알기 쉽게 수요자 눈높이에서 맞춤형으로 작성됐다.

이시희 청장은 "이 책이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와 수출 조기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 '맞손'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진행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이하 공단)이 쌍용종합사회복지관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현재 공단은 천안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2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은 '환경지키미'와 '일상생활방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종합운동장 · 시민체육공원 환경정비 ▲재활용 분리작업 ▲수영장 · 목욕탕 탈의실 및 휴게실 방역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한동흠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설이용객에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천안예술의전당, 가정의 달 기념 '감동콘서트' 개최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규)이 가정의 달을 맞아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 감동콘서트'를 22일 오후 5시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한다.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와 최정상급 출연진으로 가득 채워질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성악계의 거장 바리톤 김동규, 다수의 오페라 주역을 맡아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 소프라노 김나영, 마이클 잭슨을 키워낸 세계적인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내한 당시 초청했던 재즈보컬 고아라가 무대에 오른다.

또한, 라이브 연주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전담 지휘를 맡고 있는 최영선, 2,200여회의 정기공연으로 증명된 대한민국 대표 교향악단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베토벤에서 모차르트' 연주 '돌아오라 소렌토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테마',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등 클래식, 팝, 칸초네, 샹송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음악평론가이자 클래식 전문 진행자로 활동 중인 장일범의 유쾌한 해설로 다양한 곡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로 진행되며, 제한된 공연관람석으로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유튜브, 네이버TV 등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된다.

천안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공연 전 후 철저한 방역소독을 비롯해 출연자 스텝 및 관람객의 체온측정, QR코드 체크 등이 이뤄지니, 관람객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착용 등 공연장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예술의전당 누리집(www.cnac.or.kr)에서 확인 할 수있으며, 공연관람 문의는 전화(1566-0155)로 하면 된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아산경찰서 · 호서대, 불법촬영범죄 예방 합동 점검** 아산경찰서(서장 고재권)는 21일, 불법촬영 카메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서대학교와 합동으로 호서대학교 캠퍼스 내 다중이용시설(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했다.

**공주경찰서, 공주시 CCTV관제센터직원에 경찰청장 표창**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지난 20일, 공주시 CCTV관제센터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직원과 1분기 모범 요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태안해경, 밀입국 경계강화 군 · 경합동훈련 실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해안경계 부대인 육군 32사단 충절부대와 함께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경계 및 항만방호 강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심사평가원, 강원도 10개 지자체에 주택용 소방시설 후원및 설치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지역사회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후원하고, 심평원 봉사단을 통해 원주시 태장2동 59가구에 직접 설치 지원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천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실시** 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체계 확립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1일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진소방서, 6월 18일까지 접수

## 제21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참가 모집

당진소방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당진시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하는 화재나 자연재해, 생활안전 관련 상식 문제 풀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21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참가학급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평가일인 9월 15일 기준 시험 응시가 가능한 18명 이상의 4, 5학년 학급 단위이며(학급 인원이 18명 미만일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또는 4~6학년 전원을 합쳐 참가 가능) 평가 교재인 '불조심 길라잡이'는 6월 말부터 신청 학교로 택배 발송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급은 한국화재보험협회(www.kf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문의 사항은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 식품변질 신고 절반은 기온 높은 6~10월 발생

## 식품의약품안전처, 취급 · 보관 · 관리 각별한 주의 필요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에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져 취급 · 보관 ·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6~2020)간 식품변질과 관련해 5513건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됐으며 이 중 6~10월이 2884건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 · 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섭취 시 구토 · 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

또,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식품의 변질은 대부분 미생물, 곰팡이 등으로 성분이 변질돼 맛과 냄새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 · 보관하는 유통 · 소비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식약처가 밝힌 제품변질 예방요령은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 ▲외관상 이상 있는 제품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 요청 ▲구매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섭취, 개봉 후 남은 식품 밀봉보관 ▲야외활동을 위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 · 운반해 음식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제품, 포장지, 영수증, 사진 등)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민천문대, 5월26일

### 개기월식 관측회 진행

대전시민천문대(대장 최형빈)는 5월 26일 저녁,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관측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기월식은 2018년 7월28일 이후 2년10개월 만에 볼 수 있는 개기월식으로 5월 26일 18시 44분에 달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월출 시간이 19시 36분이므로 월출 이후부터 관측이 가능하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20시 9분에 시작되어 20시 18분에 최대, 20시 28분에 종료된다. 이후 부분식이 다시 진행되어 22시 51분에 월식의 전 과정이 종료된다.

대전시민천문대에서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고려하여 26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온라인(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월식진행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 관세청, 관평원 세종 이전 위해 공문조작 했나

###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임의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임의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안부 검토 결과라며 '관평원 세종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본지 5월20일자 1면 171억 유령청사 · 로또 특공 어떻게 가능했나…예산심의부터 곳곳이 구멍 참고)

관평원은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고시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평원은 행복청의 승인을 얻어 세종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관세청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라며 행안부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행안부 고시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했다고 강조한다. 행안부는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총리는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법리적 검토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복기자

##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부화, 옥수수 등 작물 가해 우려

### 5월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의 유충(애벌레)이 옥수수 등 벼과(科)작물을 갉아먹는 피해가 5월 4주차(5월 2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가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현재(5월 20일 기준) 열대거세미나방은 8개 시 · 군*에서 38마리의 성충이 포획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6%나 증가한 것이며, 발생 지역은 2.7배 늘어난 것이다.

열대거세미나방은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총 4차*에 걸쳐 우리나라에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월 7~8일경(3차), 5월 16~17일경(4차)에 제주, 경남, 전남 등 남부 해안가 지방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가장 많은 개체가 채집된 5월 7~8일경(3차)을 기준으로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부화에 따른 작물 피해발생 시기를 예측한 결과 제주지역은 5월 22일부터, 내륙지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월 24일~29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물 재배지에서 유충과 작물 피해를 일찍 발견하는 것은 방제 효율과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제주, 경남, 전남 등 비래 추정지역에서는 옥수수 등 벼과(科)작물 재배지 예찰1) 과 방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5월 초 · 중순에 정식(아주심기)한 벼과(科) 작물 재배지는 반드시 정밀예찰하고 발견 시 신속한 방제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곤충포획장치(페로몬트랩)을 통한 주기적 비래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하며 기존 열대거세미나방 성충 유입 시 · 군을 중심으로 작물 피해예상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예찰하고 있다.

5월 초부터 제주, 서 · 남해안의 옥수수 재배지를 대상으로 예찰과 현장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예찰 담당자들로 구성된 관계망(네트워크)을 통해 빠른 기술지원과 발생정보 공유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올해는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빠르고 발생량도 많아 유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2~3령 유충의 방제효과가 큰 만큼 벼과(科)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께서는 주기적으로 작물 재배지를 살피고,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나 대표전화(1833-8572) 신고와 함께 빠른 방제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태안소방서, 오작동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일제점검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관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119상황실에 통보되는 주소, 대상물 이름, 전화번호 등의 입력정보를 현행화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일제점검(사진)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의 주소, 대상물 이름, 전화번호 등 입력정보 현행화 ▲소방시설 오작동 주의사항 관련 안내문 배부 및 현장 컨설팅 ▲속보설비 연동상태 확인 및 자동 화재탐지설비 점검 ▲오작동 요인 제거 및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태안=김정한기자

**아름동, 두루뜰 공원 꽃무릇단지 봉사활동** 세종시 아름동 주민자치회(회장 윤석훈)가 22일 주민자치회와 청소년 등 50여 명과 함께 두루뜰 꽃무릇단지에서 잡초제거 및 산책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 임운근 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이하 협의회") 임운근 회장이 지난 20일 보호관찰 발전기금 500만원을 협의회에 기탁했다.

임운근 협의회장은 현재 ㈜대청개발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9년3월1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협의회장으로선출되는 등 대전 · 세종 · 금산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에 힘쓰고 있다.

이날 기탁한 보호관찰 발전기금 5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환경 개선과 장학금 등의 원호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임운근 협의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약소한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희망하며,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학교 브이로그' 금지 대신 지침 필요"

## 한국교총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최근 제기된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Vlog) 촬영 금지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학생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이유로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 브이로그에 아이들의 신상이 동의 절차 없이 노출되고, 비속어 자막이 나오는 등 내용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하며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가 순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했다. 교총은 "학교 브이로그는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 특히 지금과 같은 언텍트 상황에서는 더욱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브이로그를 통해 교직생활에 대해 동료, 예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브이로그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사전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작 목적, 내용, 절차 등에 있어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총은 "촬영과 편집 등 영상 제작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을 출연시킬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얻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촬영이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는만큼 단순히 개인 취미활동이나 흥밋거리 영상이어서는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으며 비속어 자막과 언행, 이념 · 정치 편향적 표현과 내용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교사는 겸업 금지 대상이지만 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유튜브 채널 운영이 가능하다.

지침에서 교육부는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며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인 채널 구독자 1000명 등에 도달하면 학교장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정복 기자

## 충남교육청, 모두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추진

### 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다문화 학생이 전년대비 803명 증가 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의 다문화 학생은 전년도 11,186명에서 803명 증가하여 11,989명으로 집계(2021.4.1.기준)되었으며, 이는 전체 학생 수 259,497명 중 4.62%에 해당한다.(2020학년도 4.26%)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는 천안(2,582명), 아산(2,303명), 논산계룡(1,068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청양(13.7%), 금산(12.2%), 부여(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학생의 시군별 증감을 보면, 다문화학생이 증가한 지역으로는 아산(269명), 천안(181명), 서산(100명)의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천(-5명), 부여(0명)는 감소하거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칭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21일 도내 5개 대학, 1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교육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는다.

도교육청은 업무협약에 참여한 건양대학교,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청운대학교, 한서대학교 등 5개 대학과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 꿈길성장캠프 운영 등 다문화교육 상호 협력과 학문적 지원을 함께 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홍성교육지원청, 코로나-19극복 지역사랑 농촌 일손돕기 실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김성수)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21일 갈산면 일원 사과농장에서 지역사랑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봉사하고자 교육지원청과 홍성 관내 학교 25명이 참가하여 과실솎기, 농가정리 등의업무를 지원하였다.

### 서천교육지원청,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 위해

## 초등 원어민 영어교사 역량강화 배움자리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은 21일,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을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날 배움자리는 학습자 배움 중심의 영어수업 방법과 초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에 대한 연수를 먼저 실시한 후 학생 중심 영어수업을 위한 교수 방법 강연에서는 학생의 배움을 촉진하는 영어수업 우수사례와 협력수업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다.

전체 협의회에서는 영어수업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했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상호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체험을 위해 한국 음식인 잡채를 직접 요리해 보는 체험을 했다.

서천 =이정복 기자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 수렴하고자 마련

## 2021 논산지역 교육재정설명회 개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구)은 지난 7일 계룡지역 설명회에 이어 5월 21일에 논산지역 교육재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김지철 교육감, 오인환 · 김형도 도의원, 구본선 시의장, 김찬수 미래교육자문위원회위원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각급 학교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85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2021년 충남교육정책의 이해 ▲ 2021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중점사업 ▲ 교육재정 현황 및 학생 · 학부모참여예산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진구 교육장은 "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가능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한 소통으로 충남교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논산 =김성구 기자

## 세종시교육청, 학생자치실 구성 사업 추진

###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지속 · 추진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자치실 구성 사업'을 지속 · 추진한다.

학생들이 미래의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식을 배우고 함양하는 공간인 학교에서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자치활동 전용공간의 설치를 통해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자치실 구성 사업'을 지난 20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반곡초, 수왕초, 쌍류초, 양지초, 온빛초, 해밀초, 어진중학교 총 7개교를 학생자치실 구성 지원학교로 선정하고, 교당 500만 원을 지원했다.

공모를 통하여 학생자치실을 단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했고, 선정된 학교는 학생자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생자치실 환경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학생자치실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간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간 주권의 의미를 알고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체감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 =김태선 기자

### 공주 석송초, 대전YMCA 주관 튼튼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 운영

## 안전한 먹거리로 '덜달게, 덜짜게 먹기' 실천

석송초등학교(교장 박돈서)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체험교실 '튼튼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전YMCA에서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후원하는 '튼튼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양교육 및 요리 체험활동을 통해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양교육과 조리실습이 가능토록 갖추어진 교실 크기의 초대형 특수차량이 학교에 찾아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며 학년별로 탑승해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당류'나트륨 줄이기 교육, 영양표시 읽는 법, 올바른 손 씻기 교육, 건강간식 만들기 순으로 이어졌다. 건강간식 '야채크래커' 만들기는 밀가루, 당근, 양파, 참깨를 넣은 반죽을 조물조물 뭉쳐 밀대로 밀고 모양틀로 찍어 오븐에 구워 완성했다.

박돈서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주 =정상범 기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건강 및 탄소중립 위해 특별한 숲속 요리교실

## 건강 지키는 숲속 요리교실 '포레스토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식재료인 우리 임산물로 즐기는 요리 체험 프로그램 「건강을 지키는 숲속 요리교실 '포레스토랑(Forestaurant)'」을 운영한다.

'포레스토랑'은 Forest(숲)와 Restaurant(레스토랑)의 합성어로, 산림청과 (사)한국음식문화진흥연구원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벤트로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는 6월 5일 시작해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오전 11시 ~ 오후 1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로 덕유산(전북 무주), 운장산(전북 진안), 방장산(전남 장성), 희리산해송(충남 서천) 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힘쓴분들의 노고 치하등을 위해 산불 진화 유공자, 코로나19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용현자연휴양림(충남 서산)에서 '포레스토랑'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이벤트는 (사)한국음식문화진흥연구원 소속 셰프들과 함께 참가자들이 우리 임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보는 시간과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산림문화 · 교육 프로그램 홍보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구성했다. 송병배 기자

###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영상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 프로그램

## 3분기 찾아가는 영상교실 수강생 모집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1일부터 6월 4일까지 3분기 찾아가는 영상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및 영상 창작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영상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4월부터는 정규강좌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상교육을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영상교실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3분기에는 꿈드림 청소년 과정, 청소년 크리에이터, 청년 · 직장인 과정, 시니어 과정, 마을단위 공동체 과정 총 5분야를 모집한다.

5명 이상(최대 8명)의 동아리 또는 팀을 구성하고 아산시 홈페이지, 이메일, 직접 방문, 팩스를 통해 영상미디어센터 찾아가는 영상교실 수업을 신청하면 분야별 1팀을 선정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영상교실의 커리큘럼은 7월에서 9월까지 선정된 팀의 의견과 교육환경을 고려해 분야별로 8회차(1회 1시간 30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제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asan.go.kr/media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전화문의(041-530-67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산 =리량주 기자

## 당진교육지원청,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

###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과 갈등관리 주제로 실시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 중등 신규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교사의 학교 업무 적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신규교사의 학교 업무 적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으로 5회기 10차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5회기 10차시로 진행되며, 그중 3회 차로 신규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과 갈등관리'라는 주제로 원당초 이효주 수석교사의 사례중심 강의로 진행되었다.

학교지원센터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는 사례중심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대처방안, 온라인 수업 제작 등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주제로 6월까지 대면 연수와 쌍방향 원격 연수를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재 교육장은 "신규교사들이 학교 업무에 빨리 적응하고, 수업 및 생활지도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 =최근수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수업나눔 장학 및 더 클래스 연구회 공개 수업**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2021 학년도 교실수업 혁신을 위하여 '수업나눔 장학' 및 교사학습공동체인 '더 클래스(THE CLASS)' 연구회 공개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대덕중학교(교장최동순)에서 영어과이현자 교사가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계획서 발표'를 주제로, 구글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그룹 발표 수업을 진행하였다.

# 공주시 농산물 유통기반 '확대'

## 전문 유통조직 법인화 · 직거래 확대로 농촌의 삶의 질 높여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안정적인 농산물유통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민이 행복하고 살만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물 유통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우선, 농산물 유통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농산물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과 농산물 온라인 판매 및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11개 농협이 38억 5천만 원을 공동 출자하고, 원예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상품화 시설구축을 위해 123억 원을 투입해 이인농협 산지유통시설 등 5개소를 설치했으며, 매년 14억 원 가량을 지원해 오이와 딸기, 마늘 등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9개소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TV홈쇼핑, G마켓, 11번가 등을 적극 활용, 3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공영쇼핑, 홈앤쇼핑 등 TV홈쇼핑과 11번가 등 온라인 채널 및 충남도 쇼핑몰인 농사랑에서 고맛나루 쌀, 오이, 토마토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홍성현 농식품유통과장은 "시 쇼핑몰인 고맛나루 장터의 매출 호조와 신규직거래장터의 확대 및 공주휴게소 직매장 설치 등 활발하게 농산물유통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생산자 조직화, 전문 마케팅조직육성, 다양한 시장개척 등 안정적인 농산물유통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당진시 오는 26일 수소경제 포럼 열려

##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온라인 생중계 병행

당진시가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 로드맵 수립과 정책제안을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당진홀에서 '2021 당진시 수소경제 포럼'을 개최한다.

당진시와 (사)당진시개발위원회가 주최하고 (재)충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송두범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진행으로 김양중 박사와 이민정 박사의 발제, 전문가들의 정책제안과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충남연구원 김양중 박사는 '당진시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민정 박사는 현재 시와 충남연구원이 연계해 사업 수행 중인 '당진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구축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또 충남 테크노파크 김영수 박사는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동향과 사업을 소개하고 백영순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장은 국가 수소 로드맵과 당진시 수소산업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당진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보급, 수소 충전소 1200개소 구축, 연간 526만 톤 수소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道, 제29회 지적세미나 열려

충남도, 제29회 지적세미나 개최]

[부제목 : 새로운 지적(地籍)전략 제시한 지적세미나 개최]

충남도는 18일 도청에서 지적 분야 미래 발전전략 모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제2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시 · 군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과제발표에서는 지적분야 미래전략, 4차 산업 기술 기반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발전 방안,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됐다.

그 결과, 부여군 황재상 주무관이 발표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화를 통한 지적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서천군 나기찬 주무관(시계열 정사영상, 과세대장을 활용한 지목현실화 추진)과 아산시 이현종 주무관(차세대 중형위성을 활용한 지적업무 활용 방안)이 각각 수상했다.

도는 이날 발표된 우수과제 3건에 대해 실무 검토를 거친 뒤 업무 반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우수 과제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적세미나에 도 대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세미나를 통해 지적(地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규모는 축소됐지만, 발표자로 나선 시군 공무원들의 과제연구와 열정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홍성군보건소 제20회 '식품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 실시

홍성군보건소는 제20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21일 홍성천 복개주차장에서 식품위생 관련 단체와 관내 대학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홍성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수막, 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활용, 식품안전의 날 홍보에 앞장섰다.

특히 이날 '식품안전의 날' 식품안전 유공 단체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시장 및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안심식당 참여 확대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등을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군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으며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한 날이다.

김정환기자

# 중소기업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필요"

##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산업위원회 열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이동재(한국문구인연합회장) · 송유경(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유통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22인이 업계 애로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 날 위원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총괄과장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경과 및 법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며,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애로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이 입점 중소기업이 협상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유통상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한 신법 제정 등 유통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동재 공동위원장은 "최근 산업분야 중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는 유통산업"이라며, "대기업은 자사 플랫폼과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유통업계의 현안애로를 발굴,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대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송유경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은 사상 최대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에도 현안별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한남대 원스톱 한남 커리어 네비게이션 공모전 열려

한남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20일 '원스톱 한남 커리어 네비게이션 로드맵 공모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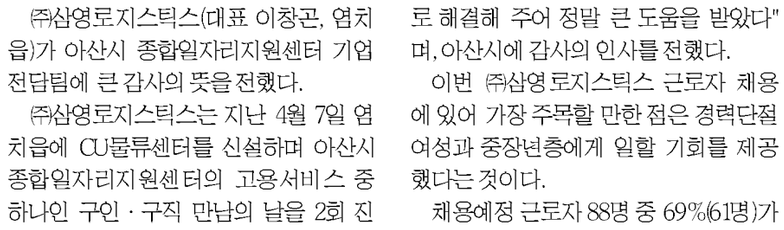
공모전은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별로 진로설계를 구조화하고 학년별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이를 평가해 수상작 14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전공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공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알아보고 취업한 선배 인터뷰를 통해 진로에 대해 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대학생활을 설계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팀별 각 1명씩 참여하도록 했으며, 이준재 취 · 창업처장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총 14개 팀으로 취 · 창업 처장이 상장을 수여했다.

한남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년별로 대학생활을 설계하는 방식이어서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다"며 "경력설계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아산시일자리센터 지역 기업에 일자리 매칭

㈜삼영로지스틱스(대표 이창곤, 염치읍)가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기업전담팀에 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삼영로지스틱스는 지난 4월 7일 염치읍에 CU물류센터를 신설하며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고용서비스 중 하나인 구인 · 구직 만남의 날을 2회 진행해 1차 36명 채용, 2차 52명이 면접 합격 후 사전교육 중으로 총 88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그 외 자체 채용까지 포함해 총 101개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과 부천에서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삼영로지스틱스는 이번에 아산물류센터를 신설하고 충남권 모든 CU편의점 600여 개 점포에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

이창곤 대표는 "먼저 개소했던 인천, 부천 물류센터는 신설 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데 큰 애로를 겪었다. 아산에서도 다른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많아 인력모집이 어려울까 염려했는데 일자리지원센터 기업전담팀이 체계적으로 해결해 주어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아산시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삼영로지스틱스 근로자 채용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채용예정 근로자 88명 중 69%(61명)가 여성근로자이며, 40~50대 중장년 근로자의 비율이 75%(66명)에 이르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했던 취업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연결돼 그 의미를 더했다.

센터 이지혜 매니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삼영로지스틱스와 우리 일자리센터 기업전담팀의 긴밀한 상호협력,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발휘된 결과"라며, "기업과 시민을 일자리로 연결하는 Job-Bridge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전담팀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1층

15주년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
2021년도 태안교육지원청 기본방향
1. 학교혁신으로 행복한 태안교육
2. 민주시민을 키우는 태안교육
3.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태안교육
4.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태안교육
5.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태안교육

## 동정

### 간담회

오세현 아산시장=24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청년기업 간담회, 오전 11시 현충사에서 열리는 멘토-멘티와의 만남, 오후 4시 30분 세원테크 기업방문에 참석.

### 간부 회의

김홍장 당진시장=24일 오전 8시 30분 당진시청 목민홀에서 개최되는 월요 소간부 회의를 주재

### 현장점검

가세로 태안군수=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안면읍 일원의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에 나선다

### 보고회

김돈곤 청양군수=24일 오후 2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신규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 청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0일, (사)대한어머니회 청양군지회, 청양군 아동청소년팀, 청양경찰서 생활안전팀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청소년 선도'보호와 원활한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위해 대한어머니회 청양군지회(회장 손미옥)와 함께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 주요 지역을 순찰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학교 주변과 노래방, PC방 등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흡연과 음주, 거리 배회 등을 선도하고 있다.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은 "일부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면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도와 선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 아산시 협업과제별 소통간담회 열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행정환경의 복잡 다양화에 대응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 행정 활성화에 나섰다.

아산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사업을 협업과제로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18일, 20일 양일간 2021년 협업과제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1년 선정 13개 협업과제별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협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올해 협업 추진계획과 부서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신규 협업과제로 지정된 푸드플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사업과 (구)소방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관리 중인 아산시 동부생활권 도시개발사업,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배방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태안군 치매환자 실종예방 시스템 구축

## 배회감지기 · 인식표 · 지문사전등록 통해 치매환자 배회 · 실종 시 조기 발견

고령화에 따른 치매어르신 증가로 배회 및 실종사건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태안군이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해 배회감지기, 인식표, 지문 및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예방 실종예방 시스템을 운영한다.

우선 군은 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배회감지기를 대여하고 가입비와 월 사용료를 지원한다.

배회감지기는 휴대가 간편한 손목시계형과 목걸이형이 있으며 어르신이 배회하거나 실종 시 2~5분 간격으로 GPS를 통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설정된 지역을 이탈하거나 진입하면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치매안심존 기능도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환자 고유번호와 신고 연락처가 기재된 인식표를 지급해 배회 치매환자 발견 시 정확하고 빠른 신고를 돕고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실종 시 그 정보를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안심가맹점,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파트너, 치매플러스 등을 운영해 평소 배회하는 치매의심 노인 발견 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인계하도록 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이 치매어르신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치매 돌봄 문화가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태안지역 치매 진단자는 총 905명으로 해마다 10건 이상의 치매 환자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 당진시 노후 가로등 LED 도로조명으로 교체

## 사업비 2억 원 투입 ·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당진시가 원도심 중앙로 등 24개 구간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야간에도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370개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를 완료했다.

당진시는 기존 에너지 소모량이 큰 방전등(나트륨, 메탈) 및 노후화된 불량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가로등 대비 전기 사용량이 약 50% 이상 감소되고 점등시간 또한 3배 이상 길어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광원별 교체 시기가 도래한 구간을 사전 조사했으며, 가로등 810개를 교체하는 등 선제적으로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충남도민 체육대회 및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당진시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LED 조명 교체사업을 통해 방문객들과 당진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가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어르신 코로나19 감염 방지 민 · 관 대응 '총력'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7월 초로 예정된 2021년 하반기 어르신 목욕 및 이 · 미용권 배부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관내 목욕탕 내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발생과 관련, 지난 20일 목욕업소 측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 어르신의 목욕업소 방문 자제 필요성에 따른 2021년 하반기 목욕 및 이 · 미용권 배부 연기를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마을방송 또는 마을회관, 아파트 내 안내문 게시 및 각종 기관 · 단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어르신 목욕 및 이 · 미용권 배부 일정 연기사항을 안내해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어르신들의 목욕 및 이 · 미용업소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목욕 및 이 · 미용 업소에도 배부 일정 연기에 대해 안내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영업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배부된 목욕권 및 이 · 미용권 사용을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코로나19 추이 상황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어르신 목욕 및 이 · 미용권 배부 일정을 조정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이원~대산 간 연육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총력

## 태안군, 국토부 사전기획 조사용역에서부터 교량으로 검토 성과로 올려

태안군이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신규노선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팔 걷고 나섰다.

태안군은 21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이성종 건설과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신규 노선 지정에 따른 제5차 국도 ·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반드시 성취해 나겠다고 했다.

군은 최근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일괄예비타당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통과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원~대산 간 연륙교 사업이 일괄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6~7월중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 및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30) 고시 계획이다.

본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고시되면 5년 이내에 설계를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돼 군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발 빠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이성종 과장은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국도 신규노선 지정에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준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사업이 본격 가시화 되면 물류와 산업 및 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서 대변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만4천 군민의 반백년 숙원사업인 국도38호 노선 승격은 절대 과대홍보가 아니며 해상교량 건설은 19년부터 국토부에서 진행한 사전기획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다.

한편, 군은 2018년 광개토대사업의 핵심사업의 하나인 이원~대산간 5.6㎞ 국도 노선 연장을 위해 청와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을 시작으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해 2019년 4월 사전기본조사 용역에 착수 후 국무총리 면담,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 방문 건의를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토부(안)에 반영 되는 성과를 올린 셈이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통과

## 당진시, 2012년 첫 지정… 23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역할

당진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해 2023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조직 · 예산 · 인력 등)을 구축한 도시를 말하며, 지역의 여건 · 특성 · 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는 지정 이후 4년 이상 도래한 도시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사업 운영 및 성과 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당진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유와 전파에 대한 노력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온 · 오프라인 공간 플랫폼 확장 노력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당진시는 2012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GNLC)의 회원도시로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학습하는 시민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양군 여름철 가축 관리요령 홍보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가 여름철을 앞두고 고온기 가축의 발육 저하와 번식 장애, 폐사를 막기 위한 관리요령 홍보에 나섰다.

높은 온도와 습도가 지속되면 가축의 체온이 올라가 사료 대신 물을 많이 먹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고 30도 이상 고온이 지속될 때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다 심하면 폐사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온기 돼지 사육에서는 무엇보다 밀도 조절이 중요하다. 사육밀도는 3.3㎡에 큰 돼지 3~4마리, 새끼돼지 6~7마리, 육성돈 4~5마리를 유지하고 급수시설은 1일 1회 이상 점검해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또 돼지의 피부온도를 낮추기 위한 안개 분무 장치나 스프링클러, 샤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 축사는 환풍기를 이용해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가 크다. 개방형 축사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축사 50㎡(15평)에 1대 이상 환풍기를 설치해 1m/s 이상 풍속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창문이 없는 밀폐식 축사는 공기 순환이 잘 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공기 유입용 관(덕트)은 아래쪽으로 설치해야 한다.

운동장이나 축사에 빛 가림막을 치면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때 그늘막의 설치 방향과 높이,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터널 환기식 닭장은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에 쿨링 패드를 설치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또 냉수를 공급하면 가축의 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사료를 덜 먹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별 사육 적정온도는 소 20도, 돼지 25도, 닭 24도로 이보다 더운 날씨가 지속하면 사료 섭취량 이 줄고 발육이 늦어진다."며 "축사 적정온도 유지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 부여군 청렴시책 강화 '총력'

### 신 뢰받는 군정구현과 청렴도 향상 위해 실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신뢰받는 군정구현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년도보다 한층 강화된 반부패 ·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로 청렴문화 정착' 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전예방으로 부패제로화, 구성원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부여군은 우선 교육을 통한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5급이상 간부공무원, 공사, 보조금, 재 · 세정, 인허가 등 업무 분야별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청렴상시학습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청렴학습을 갖고 월 2회 청렴메시지를 발송하여 청렴이 공직사회 일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해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시행, 청렴 군민감사관 제도 등 청렴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밖에도 '청렴 해피콜', '청렴 골든벨', '청렴 콘서트', '찾아가는 청렴교육'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정책 홍보 및 청렴캠페인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공유 ·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실시

### 논산시, 오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 · 접수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일러 교체(일반→저녹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을 실시,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 · 접수한다.

시는 관내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대해 일반가정의 경우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총 사업비 5280만원을 들여 248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 2021년 들어 설치된 저녹스 보일러에 한해 지원되며, 논산시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줄이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약효과도 탁월한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로 알려져 있다.

# 고당도 논산 수박 본격 출하개시

## 전국 입맛 사로잡는다… 당도와 풍미가 제철 수박에 버금가는 것으로 유명

논산시(시장 황명선)를 대표하는 원예작물 중 하나인 고품질 수박이 겨울을 이겨내고, 훌쩍 찾아온 초여름 더위에 때맞춰 시민 곁을 찾는다.

논산시에서 손꼽히는 수박생산자단체인 논산시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대표 김종일)은 지난 4월 말부터 겨우내 착실하게 키워 낸 고품질 수박을 대형마트에 출하하기 시작했다.

논산 수박의 경우 겨울의 한가운데인 1~2월부터 수박묘를 식재하고 4월부터 출하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재배된 수박은 작지만 속이 꽉 찼을 뿐만 아니라 재배기간이 길어 당도와 풍미가 제철 수박에 버금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출하면적은 490동 51㏊로, 총 매출액 2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당도에 따른 가격차별화 콘셉트를 시도해 농산물 제값받기는 물론 소비자 신뢰확보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수박 출하에 발맞춰 농가별 입출고 정산시스템(EPR)을 보급하고, 바코드를 활용한 세분화 유통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박은 고온성 작물이지만 농업시설을 활용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해 사시사철 맛볼 수 있게 되었다"며 "논산 수박이 전국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연구와 적극적인 농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논산시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설립해 운영하는 선도농업인 조직체로, 2019년 일본 농산물우수관리제도(JGAP) 인증을 받는 등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까지 논산 수박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 부여군 최신기법을 도입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최근 이슈가 되는 드론을 활용한 드론 정사영상과 별도로 도심지역인 동남3지구에 전국 최초로 입체영상사진을 구축하여 현장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여읍 동남리 1-3번지 일원 2,023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고해상도 입체영상을 보면서 토지이용현황과 필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들 간의 경계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룡면 논티1지구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협업하여 보다 더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편의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가 명확해져 분쟁이 해소되고 군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여=김성구기자

##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시민 주거환경 개선 위한 생활EM무상공급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식)는 오는 24일부터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생활EM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전했다.

EM미생물이란 유용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맑은 미생물 중에서 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여러 종을 조합 · 배양하여 항산화 작용 및 악취제거, 부패억제,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며, 거실 및 방청소, 세탁, 생활원예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EM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빈통을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1인당 2리터씩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정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은 물론 생활 분야에서도 친환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생활 EM보급이 시민 모두가 일상 속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원예용미생물과 축산용미생물을 연간 1천5백톤 공급, 병해충 발생 경감 및 생육촉진, 축산에서의 악취저감 등 친환경적 영농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지난 2020년 하반기에는 원예작물의 생육촉진과 병 발생 억제 및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는 클로렐라를 공급한 바 있다.

EM미생물 보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축산팀(041-746-83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동 정**

**재난안전대책회의**

박정현 부여군수=24일 오전 8시 30분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열리는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교길 청소년 보호 아웃리치**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등교길 청소년전화 1388 홍보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아웃리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 등교길에 방역용품(마스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플릿을 배포하며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 상담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이다.

또한, 보호 · 교육 · 자립 자활 등 통합된 사회 안전망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담신청 및 문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접방문(부여문화원 1층)하거나 상담 전화(041-836-1898)를 이용하면 된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대전투데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면도농업협동조합

태안군산림조합

태안농업협동조합

### 동 정

**드론활용 벼 직파 시연회**

김정섭 공주시장= 24일 오전 11시 정안면 대산리 일원에서 열리는 드론 활용 벼 직파 시연회에 참석한다.

**주간현안보고회**

김동일 보령시장 = 24일 오전 8시 20분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현안보고회에 이어, 11시 호국사에서 열리는 임란공신 추모대제와 오후 2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제5차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

**확대간부회의**

맹정호 서산시장= 24일 오전 8시 4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참석,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귀농귀촌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총회 참석.

**충청남도교육장협의회 월례회**

서정문 보령교육장= 24일 오후 1시30분 부여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교육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 서산 백철기 주무관 건축사 자격 취득

서산시 건축허가과에 근무하는 백철기 주무관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해 화제다.

백철기(52 · 시설 6급) 주무관은 지난 3월 실시된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경력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목원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건축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선 백 씨는 건축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와 공사감리 등 실무 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해 시험을 준비해 왔다.

평소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온 백 주무관은 건축사 자격 취득으로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 주무관은 "건축실무의 경험과 직원들의 격려 및 배려로 시험에 합격하게 됐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서산 =김정한기자

## 금산 국사봉 둘레길 붉은 아카시꽃 만개

금산 국사봉 둘레길에 붉은 아카시꽃이 만개했다.

이 길은 군북면과 제원면 등 2개면 5개리 중앙에 있는 국사봉을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금산산꽃벚꽃마을오토캠핑장, 두두리, 제원면 동곡리, 길곡리 신안사 등을 지난다. 총 17㎞ 구간에 붉은 아카시길 2㎞, 모감주길 2㎞, 마가목길 3㎞ 등 코스가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잔여 구간에 특색있는 화목, 약초꽃을 심어 꽃도 보고 건강도 찾는 명품 임도 둘레길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주민들께서 힐링이 되는 임도 둘레길에 따라 걸어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 보령시, 5년간 고용 창출로 지역 고용 위기 적극 대응

# 중장기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보령시가 석탄화력 1 · 2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 산업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2021년 공모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충남도와 아산 · 서산 · 당진 등 3개 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여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 12일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컨소시엄(광역+기초지자체)이 주도적으로 산업 및 경제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 · 추진해 고용안정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충남도와 3개 시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국비 327억원 포함 사업비 409

억원을 투입해 충남일자리진흥원 등 8개 수행기관과 협업하여 2025년까지 연 1100명씩 5년 동안 모두 5500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한다.

컨소시엄은 고용 안정망 강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맞춤형 거버넌스 운영, 탄소기반산업 고도화를 통한 위기 산업 재도약, 친환경 에너지 및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 3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5년간 11억원을 지원받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위기대응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이 · 전직자 직무 분석, 관내 산업단지 인력 수요 파악 및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해나간다.

또한 시 협력 수행기관인 아주자동차대학에서는 110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 이 · 전직자 인력 재배치 및 자동차분야, 신재생에너지 직무 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 석탄화력 1 · 2호기 폐쇄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시기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지역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공주시 반포면, 깨끗한 거리 만들기

# 환경정화활동 실시

공주시 반포면(면장 김재철)은 최근 공암리 일원에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반포면 직원과 반포면새마을회(협의회장 임창훈, 부녀회장 김말임) 회원,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하천(용수천)변 및 소재지 골목길의 쓰레기 수거와 불법광고물을 제거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청소 참여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내 집'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 캠페인을 벌였다.

김재철 면장은 "바쁜 와중에도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창훈 새마을협회장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살기 좋은 반포면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면은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감시활동과 함께 하천,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정상범기자

### 금산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 반부패 · 청렴 교육 성료

금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다용도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열린 간부공무원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으며 공공재정연구원 최두선 원장이 강의를 맡아 내부 직원 및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청렴도 분석 및 향상전략과 간부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진행됐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오늘 교육을 통해 군 청렴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금산군이 되기 위해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해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금산군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모두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군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올해 △전 직원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 · 친절 아침방송 △청렴조형물 제작 △선물 안주고 안받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만성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훈련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근)는 최근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센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등록 회원들의 오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백제오감체험관에서 체험하고 웅진백제역사관 및 무령왕릉을 살펴보며 공주시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회원들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었고 공주시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주시보건소와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앞으로 만성정신질환자들의 대인관계기술 증진, 사회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비롯해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의 및 상담은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41-852-1094) 홈페이지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 우/리/동/네

**공주시 탄천면,바리스타 · 제과기능사교육 수료식**

# 지식채움 프로그램 일환

공주시 탄천면(면장 배수명)은 지난 20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역량강화 지식채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바리스타'제과기능사교육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공주시와 한국농어촌 공주지사가 주최하고 지역역량강화 용역사인 이음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수료식에는 지식채움 프로그램 2기 교육을 마친 바리스타 7명, 제과 5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에게는 마을 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촉장도 함께 전달됐다.

김일배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위원장은 "마을활동가를 적극적으로 활동해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명 탄천면장은 "지식채움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마을활동가 28명의 활동으로 탄천면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어업정책 공감행정 구현 소통 시간 가져**

# 보령시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

보령시가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대천항 어업인들과 시정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수산업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지난 20일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최요한 보령수협장, 고영욱 대천서부수협장, 대천항 어업인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돌제 물양장 조성, 주차타워 조성, 보령복합마리나 조성, 4면 시계탑 · 포토존 설치 등 여객터미널 주변 환경개선, 아름다운 조명으로 대천항 밤거리를 환하게 비춰줄 달빛등대로 조성 등 대천항 주요 사업 8건에 대한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어업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3월 23일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 발생과 관련해 어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대천항 내 자위소방대 조직으로 발빠른 화재 대처 능력을 배양하자고 협의했다.

이와함께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 정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대천항 내 무단 점유 시설물 단속 안내와 관내 어업인들에게 대천항 수산민원실 이용 홍보를 요청했다.

김동일 시장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만세보령의 앞바다를 지켜오고 계신 어업인 여러분께 늘 고마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서산시 박재숙 도예작가 초대전 25일부터 열어

서산시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서산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박재숙 도예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초대전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예 전시 작품 감상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획했다.

박재숙 작가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도예 작품 30여 점을 『기억의 조각』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 · 운영되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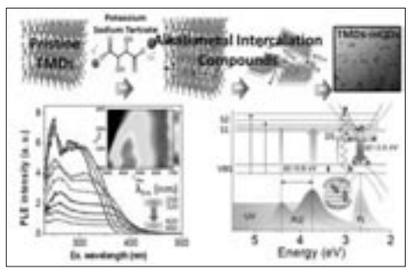
박재숙 작가는 "우리의 전통공예인 도자공예가 고가의 수입 도자에 뒤지지 않다는 것을 초대전을 통해 시민 모두가 느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알차게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숙 작가는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사기장 29호 이수자며,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충남관광상품공모전, 대한민국황실공예대전, 충남공예대전 등에서 다수 입상한 중견 작가다. 서산 =김정한기자

공주대 송성호 교수 연구팀 · 한국과학기술원 전석우 교수팀과 공동연구

##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 양자점 새로운 광학특성 최초 보고




국립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송성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형광) 전석우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받고 있는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을 금속상의 양자점으로 제조했고, 양자점 내에서 전자가 서로 다른 광학적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전이금속 칼코겐은 MX2 (M=전이금속, 텅스텐, 몰리브덴등; X=칼코겐, 황, 셀레늄, 텔루늄등)의 화학 구조식과 1~2 eV대의 밴드갭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밴드갭의 유무에 따라 도체, 반도체 또는 부도체로 구분)을 가지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전이금속 칼코겐 소재 4종류에 대해 평균 지름 ~10 nm(머리카락 두께의 5000분의 1) 보다 크거나 작은 양자점을 유기-금속 화합물의 층간삽입 및 박리법을 통해 금속상을 가지는 양자점으로 제조했다.

이렇게 제조된 양자점들로부터 빛에 의한 전자들의 여기와 형광 감쇠 현상 등을 관측했다.

이때 기존의 다른 양자점들과는 달리, 금속성 전이금속 칼코겐 양자점들에서는 전자들이 광에 의한 여기와 형광 감쇠 과정에서 양자점 크기나 양자점 내 결함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정을 경쟁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이금속 칼코겐 양자점을 광전소자, 촉매, 바이오센서, 또는 에너지 변환 시스템에 활용할 때에 종류와 크기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나노·재료 분야의 권위 학술지이며, Nature 자매지인 'NPG Asia Materials'에 실렸으며, 물리(physics) 분야의 중요한 결과로 인정되어 News Break 온라인판에 소개됐다.

공주=정상범기자

농협은행 충청심사센터, ESG 경영 실천

## 헌 옷 기부 나눔 ESG경영 실천

농협은행 충청심사센터(센터장 추기만)는 23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 비대면 헌 옷 기부 나눔을 실천했다.

헌 옷 기부를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자원 순환과 탄소배출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나눔행사에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모아진 헌 옷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및 제3세계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충청심사센터 추기만 센터장은 "일상 속 작은 참여로 버려지던 옷의 자원순환을 위해 이번 캠페인에 준비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ESG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 대전동부 위(Wee) 센터 '꽃향기가득 원예체험' 운영

### 희망을 노래하다! 식물 가꾸기로 하나되는 우리 가족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위(Wee) 센터는 22일 '2021학년도 희망메아리 문화체험 꽃향기 가득 원예체험'을 실시했다. 대전 동부 위(Wee) 센터 이용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플로리스트 강사와 함께 가족 원예체험 테라리움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메아리 가족문화체험은 문화적 소외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활동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문화적 교감을 향상함으로써 상담 종결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 동부 위(Wee) 센터에서는 추후 관리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격월로 다양한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희망메아리 체험활동으로는 최근이 슈화되는 유해 먼지 제거 등 청정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테라리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테라리움은 스타디아 모스, 틸란드시아 등의 식물들을 가꾸는 활동으로, 자연 및 가족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가족 간 협동 작업을 통해 정서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가족 간 유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숙 학생생활지원센터 과장은 "희망메아리 '꽃향기가득 원예체험'은 협동 작업 통해 가족 생활환경을 되돌아보고 가꾸는 기회가 되어 추후관리 학생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개인 적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당진시, 공익활동가 아카데미 과정 개강…6주간 강좌 운영

당진시가 지난 20일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수강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 공익활동가 아카데미 입문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가 실무를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익활동 및 모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강식에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수강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워크숍, 조재학 지역리더십센터 '함께 이룸' 대표가 '지역에 필요한 선한 영향력, 공익활동가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과정은 ▲공익활동가의 역할 ▲비영리 공익활동 사례 ▲현장중심 역량강화 등의 내용으로 6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공익활동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총 6회 차로 진행된다.

당진=최근수기자

**대한적십자사 아산지구협의회,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회장 박종숙)가 지난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염치읍 일원 은행나무길에서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오세현 아산시장, 법곡동 민영 주말농장 현장 방문 '소통시간'

오세현 아산시장이 21일, 법곡동 달꽃 주말농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세현 시장은 주말농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유아 13명을 대상으로 깜짝 선생님으로 변신해 고구마 재배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아산시는 도시민의 농업 체험 및 여가 활동을 위해 배방, 탕정, 온양 등 6개 지역에 주말농장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3월 희망자를 신청받아 4월 1000가족에게 분양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이 방문한 법곡동 주말농장은 민영 주말농장 시범 운영을 위해 2019년 호미, 낫 등 공용 농기구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해 개장했으며 현재 60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단지와 가깝고 도시민에게 기초적인 작물 재배법을 안내해주며 텃밭 활동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 5만 원의 회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은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도시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주말농장 및 도시농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청양군, 혁신플랫폼 건축물 명칭 '와유' 선정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주민 소통공간이자 혁신플랫폼으로 활용할 건축물의 이름을 '와유'로 정했다.

와유는 초대 의미를 가진 '와요'의 충청도 말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물이라는 뜻을 담았다.

군은 지난 3월 명칭 공모에 나서 응모작 333건을 접수했으며, 이후 사전심사와 군민 선호도조사,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청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당선작 와유 출품자에게 청양군수 표창과 상금 30만 원, 장려상 '청양뜨락' 출품자에게 청양군수 표창과 20만 원, 나머지 상위 5건 출품자에게 10만 원씩 전달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주민 소통공간 와유가 공동체 회복과 발전의 핵심 시설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와유는 지상 2층 건물로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며 1층에 회의실, 1인 작업실, 휴게 공간을 배치하고 2층은 중간지원조직 통합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공주시 '성 평등 도시' 건설 박차** 공주시(김정섭 시장)가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룡면 경천1리 경로당에서 제2기 성 평등 인형극단 발대식 및 행복 빨래터 2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제2기 성 평등 인형극단은 계룡면 경천1리 마을주민 16명으로 구성됐다.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성료

### 2021 꿈다해봄 청소년행복축제 '유청수 텔:레비전' 개최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22일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개관5주년을 맞아 '꿈다해봄' 청소년 행복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꿈다해봄' 정책 브랜드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자 'Tell A Vision 청소년 꿈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기념행사는 실시간 온·오프라인으로 중계됐다.

이날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조승래 국회의원, 구·시의원, 청소년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이벤트 '응답하라 2016 수련관', 'SNS 응원 릴레이 챌린지' 등을 진행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본행사 1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자치활동단이 직접 기획한 '아는 수련관 형님' 무대를 통해 내빈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2부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일환으로 동아리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개관5주년을 축하드리며, 꿈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미래비전을 펼쳐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꿈을 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5월 4일 개관한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0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우수운영단체 수상하는 등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재 청소년을 위한 8개분야 30개 사업 운영으로 유성구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대전모금회, 복권기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1억 1천여만원 지원**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태희, 이하 모금회)는 지난 20일, 복권기금으로 마련한 1억 1천여만원 상당의 배분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기관 44개소를 대표해 향기로운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됐다.

## 농식품 빅데이터로 성공창업 디자인하라!

### aT,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내달 30일까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농식품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K-FOOD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농식품 빅데이터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공모주제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을 구성해 K-FOOD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용 홈페이지(k-foodcontest.kr)에서 신청양식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내달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팀(부문별 10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팀에는 서비스모델 개발과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후 8월 5일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 9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 aT 사장상의 상훈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특히 분야별 상위 1팀에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9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상위 수상작 3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등 사업화 과정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aT 김춘진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빨라지면서, 농식품 분야에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 농식품 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예비창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온양2동,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실천 캠페인** 아산시 온양2동(동장 성은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MSL 레저용품 전문점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자이글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보드보드 전문점 · 골프용품
專務理事 최재종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78-6 TEL : 042)489-3030 · 486-7876
FAX : 042)472-5885 H · P : 011-408-6600 Website : www.msleports.co.kr

**충남교육청, 청소년 선도 유공자 22명 표창패 수여** 충남교육청

(교육감 김지철)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20일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21년 청소년선도유공자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농협 당진시지부, 신성대학교와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농협 당진

시지부(지부장 조원상)는 신성대학교와 함께 지난 5월 21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스마트팜 딸기농장을 찾아 농협 직원 및 신성대학교 학생 등 20여 명이 일손을 보태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율강복지재단, 아산시에 저소득층 의료비 후원** 아산시(시장 오세

현)와 사회복지법인 율강복지재단(이사장 홍승덕)이 지난 20일, 아산시청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35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아산시보건소에 등록된 지역 내 저소득층 소아암환자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 직원과의 도시락 간담회로 소통 강화** 지

난 20일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직 팀장을 대상으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성수 총장은 직원들과의 대학발전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행정 6급 팀장들과 도시락으로 식사를 함께하며 다양한 대학 현황과 발전에 대한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자유총연맹금산군지회 청년회 '사랑의 쌀' 전달** 한국자유총

연맹금산군지회 청년회는 지난 20일 금산군청을 방문해 150만 원 상당 쌀 50포를 기탁했다. 이날기탁한 '사랑의 쌀' 은 읍 · 면 생활관리사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및 복지사각 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 변호사 3인, 2021년 첫 나눔 리더 단체 가입** 대전

지방변호사회 (왼쪽부터) 이봉재 총무이사, 임성문 회장, 최진영 부회장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태희) 나눔 리더 회원으로 동시 가입하며, 2021년 첫 나눔 리더 단체 가입을 진행했다.

## 건양대, 국내 유수의 학회 유치… 교육과 연구 강한 대학 이미지 변화

# 개교 30주년 기념 한국관리회계학회 개최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대학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건양대학교(총장 이철성)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국내 유수의 학회를 유치하여 교육과 연구가 강한 대학으로 이미지 변화를 하고 있다.

한국관리회계학회(회장 김재열, 건양대 교수)가 22일 건양대 대전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에서 '2021년도 하계학술발표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발표대회는 '기업 현장의 관리회계와 미래'라는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가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추진전략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PwC컨설팅 조영균 부대표가 '기업 현장의 경영관리와 고민'이란 주제로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과 토론을 했다. 또한 세션별 학술발표에서는 건양대와 고려대, 공주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서강대, 전남대, 충남대, 한양대, 호서대, KAIST 등 많은 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여 좋은 관리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김재열 회장(건양대 교수)은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관리회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학술대회에 많은 논문을 제출한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사단법인 한국관리회계학회가 주최하고 계룡건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KPMG, ㈜지에이치, ㈜한길, 한우물, ㈜한진펌프 등의 기관 후원으로 건양대가 주관해 개최됐다.

건양대 이철성 총장은 "한국관리회계학회는 기획재정부 소속 지정기부금 학회로 관리회계에 관한 실무적 ·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관련 분야인 생산, 조직, 마케팅, 공학 분야 등까지 넓히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회계분야의 핵심학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양대학교는 8월(한국세계문화사학회)과 11월(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에도 학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정복기자

# 동구 명예구청장, 대청호 일원 현장방문

## 관광동구 조성 위한 대청호 일원 주요 관광사업 현장 방문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21일 명예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대청호 둘레길 등 대청호 관광명소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채 진행됐으며 명예구청장 등과 함께 동구의 대표 관광자원인 대청호 일원을 방문해 관광시설 조성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등 사업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예구청장들은 황인호 구청장과 함께 순찰선을 이용한 대청호 탐방을 시작으로 ▲대청호 자연생태관 ▲대청호자연수변공원(미로시설) ▲여가녹지 조성지 및 물속마을 정원 ▲명상정원 ▲효평마루 순으로 현장을 방문해 주요 관광명소 사업 현장 추진현황을 두루 살폈다.

대청호 오백리길 일원은 지난 2020년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돼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대청호를 비롯한 동구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동구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라며 "이러한 뛰어난 관광자원을 잘 가꾸고 조성해 사람이 모이는 도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구 명예구청장은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1회 구청장 주재 정기회의를 개최해 정책 제안 등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선기자

## 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 국토정보업무

# 지적업무 역량 강화 위한 직무교육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지사장 황인덕)는 보령시청 민원지적과(과장 한경수)와 지적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령시청 민원지적과는 「2021년 충청남도 지적행정 점검 및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에 따른 직무교육과 세계측지계 전환을 대비한 성과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LX는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숨은인구찾기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황인덕 LX 보령지사장은 "대국민 서비스인 지적측량의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근무 중 이상무! 교육청은 우리가 지킨다"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테마와 소통이 있는 사회복무요원 교육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은 5월 21일 동부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1명 전원을 대상으로 테마와 소통이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중심으로 최근 타 · 시도 부실 근무 및 우수 미담 사례와 함께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신 교육 위주로 진행했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실제 복무사례 교육을 통해 유의사항 전달과 함께 원활한 학교 지원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긍정적인 다짐의 계기가 되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대성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안정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사)공주시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 백신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사)공주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난 4월부터 16개 읍 · 면 · 동 지역의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제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에서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질서유지 및 접수안내, 접종 대기장소 지원, 예진표 작성, 보행도우미, 주차관리 등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박명순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백신접종 후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찾으시길 바란다."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아무런 사고 없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공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 한서대학교, 가로림만 사진 공모전 개최

한서대학교 LINC+사업단과 (사)가로림만생태관광협의회가 공동주관한 '가로림만 100년을 그리다. 과거 · 현재 · 미래가 공존하는 가로림만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21일 한서대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520여 점이 출품된 공모전에서 대상은 서산시의 차애숙씨가 응모한 '더 가로림만 : 고요한 飛上'이 차지했다. 감태를 담은 사진이 심사위원들에게 가로림만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진전은 교육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서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해 행사를 빛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의 충남형 해양 신산업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김정한기자

## 순천향대, 지역 소외계층 위한 나눔의 손길 펼쳐

순천향대(총장 김승우)가 오는 22일,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 '1+3 사랑나눔 V상상버스 미스터리 봉사여행 -나의 첫 봉사활동에 협력 기관으로 참여, 42명의 학생들이 도고 · 신창면 일대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의 손길을 전한다.

'1+3 사랑나눔 V상상버스 미스터리 봉사여행 - 나의 첫 봉사활동'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순천향대 향설나눔대학을 포함한 관내 8개 기관이 협력해 총 180여 명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 해결해 나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순천향대 학생들은 처음 봉사활동에 나서는 중학생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함께 봉사활동 경험을 하게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 청양 월성사,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소재 월성사(주지 도해 스님) 신도들이 지난 19일 청양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도해 스님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신도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돈곤 군수는 "도해 스님과 신도들의 따뜻한 정을 어려운 분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 대투 논단

# 정치시즌과 불량정치인 퇴출

김헌태 논설고문

정치시즌이 다가온다. 정치권은 내년 3월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자천타천의 대선후보들이 등장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율을 장식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저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내년 대선의 풍향계를 가늠하고 있다. 아직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간을 보는 후보군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국민 앞에 정식으로 나오면 그 흐름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내년 6월1일 치러진다. 이제 1년여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조직을 정비하며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바야흐로 정치시즌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요즘 각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하느라 분주하다. 여당은 이미 이런 절차를 끝내놓고 내년 선거를 위한 몸 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은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 선출을 위해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초선들도 너도나도 나서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어찌 보면 많이 변한 풍속도를 보게 된다. 참으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야당으로서는 변화의 몸부림으로 보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정제정돈의 미흡성도 드러난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내년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과연 그럴 역량과 자질을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며 새로운 바람몰이를 하려는 것인지 그 흥행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무튼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 당의 정치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들의 무한 불신의 단초가 되어왔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갖은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표몰이를 해왔다. 선거철에는 정상모리배들과 선거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철새정치인이나 선거철 한몫 보려는 브로커들에 이르기까지 추잡한 선거판의 전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심지어 공천장사라는 말까지 생겼다. 선거철 공천을 받기 위해 얼마의 돈이 들어갔느니 하는 말을 흔히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정치판이 올바로 설 수 있는가는 불문가지이다. 무엇보다 자질을 철저히 검증한 인물이라고 해놓고 당선이후 등장하는 갖은 불미스런 사태 등을 보면 참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보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이고 국민들의 축제인양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야합과 작당의 정치, 매화타령의 정치가 득세해온 것이 바로 현실정치에서 접하는 모습들이었다. 물론 국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치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표리부동한 선출직 불량정치인들의 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이 절실하다.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온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잃고 갈지자 행보를 벌이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다시금 돌아보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정치의 불안정성과 신뢰감 상실이 가져온 오늘날의 정치 자화상이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 고통의 눈물이 멈출 날이 없다. 이런 정치판을 만들어낸 국민들은 그 1차적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쇼나 일시적인 장밋빛 공약에 현혹된 결과물이다. 지금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탕발림을 하는 수준 낮은 공약이 나오고 있다. 무슨 돈을 얼마를 주겠느니 하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젊은이들은 시큰둥하다. 우리 젊은이들의 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는 듯하다. 마치 돈으로 표를 구걸하는 듯하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군웅할거시대라고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 탄생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면 지방선거에 나서고 지방선거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기성정치인들의 '회전목마타기'는 이제 식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자치분권을 향한 제 2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다.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검증된 훌륭한 인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정상모리배들이 지방정치에까지 판을 치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 중앙정치의 작당과 협잡의 정치의 오류가 등장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제2기 지방의회가 벌써 30주년을 맞고 있다. 지방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꾼을 내세우려는 정당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훌륭한 인물들을 찾아내야 한다. 자기 주변의 인물만을 내세우며 편갈이하는 식의 정치행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지역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정치인들은 투철한 공인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를 모토로 바로 서야 한다.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지방의회에 있다.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이다.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 불량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을 분열시키고 편갈이 하는 작당의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한다. 특히 오만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은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만 되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 무엇보다 난마처럼 헝클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화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은 지방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들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과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 절실해지고 있다. 군웅할거시대를 맞은 정치시즌이 도래한다. 정치판은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만드는 판이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고통을 외면한 자들은 이제 당연히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중앙정치이건 지방정치이건 냉철한 자세로 정치권력을 바로 잡아 국민인 나를 울리고 고통을 준 가짜 일꾼들을 속아내야 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허튼 짓을 한 정치인들은 이제 단죄를 받아야 한다. 내년 6월 치르는 전국지방 4대 동시선거를 대선일인 3월9일 동시에 치르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당연지사이다. 이중삼중의 소모적인 선거전으로 가득이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이유는 없다. 어쨌거나 정치시즌에 유권자인 국민이 얼마나 막강하며 위대한 존재인지를 불량 정치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불량정치인 퇴출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 기 고

# 내가 사랑한 '모항(茅項) 파출소'

조 유 미
태안해경 모항파출소 순경

서해 바다의 맛과 멋, 두 가지 미(美)를 품은 충청남도 태안군! 그 중에서도 서해바다 품에 안긴 듯 조그맣게 자리잡은 모항항(茅項港)! 이 곳을 등대처럼 불철주야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 모항파출소!

이곳들은 나에게 정말 특별하다. 갓 피어난 해양경찰 신임순경 무궁화 계급장을 어깨에 얹고 첫실습을 나선 곳이 태안 모항이였고, 태극 경찰흉장을 가슴에 달고 첫출근을 나서 1년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곳도 바로 이곳 모항파출소이다.

만리포해수욕장, 파도리 해식동굴, 어은돌항 등 유명지 안전관리 파수꾼이 바로 모항파출소이다.

만리포해수욕장은 전국에서 가족단위 관광객 뿐만 아니라 서핑객들이 많이 찾는 서해안의 서핑명소로도 손꼽힌다. 성수기 여름에는 일일 방문객 500~1,000여 명이 연안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순찰차와 연안순찰정, 수상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주변 해·육상 순찰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요즘 핫한 장소로 떠오르는 파도리 해식동굴은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다. 다만, 만조시간때에 고립위험이 큰 만큼 매일 물때를 확인해 안전계도 방송과 현장 퇴거조치 등 방문객 안전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레저보트 출입항과 캠핑장으로 잘 알려진 어은돌항은 출입항 레저보트 대상 항해장비 이상유무 확인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관리와 캠핑 레저객의 안전계도 관리에 유의하여 순찰에 신경을 쓰는 구역이다.

이처럼 서해바다의 맛과 멋을 찾아 찾아오는 방문객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늘 앞장서는 곳이 우리 모항파출소이다. 특히, 사고 이전에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계도방송과 순찰을 강화해 각종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우수 파출소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다.

2년차 여경의 눈에 비친 모항파출소는 따뜻하고도 열정이 넘쳐 큰 자부심마저 느끼게 한다.

신임순경 시절 그 많은 어선들의 선장님과 선적항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선배 경찰관들을 보며 존경심과 함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무겁게 뒤따랐다.

이제는 모항 관내를 꿰뚫고 선명만 들어도 어느 항에서 어느 선장님이 조업을 나가시는지 유연한 상황처리를 할 수 있게끔 따뜻하게 챙겨 준 동료 선배 경찰관들께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보낸다.

바다는 정말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출항 어민들의 안전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한손에는 어선 출입항 자동관리시스템(V-PASS)를 다루는 마우스를 쥐고, 또 다른 한손에는 모바일 사무기기를 들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며 어민들의 출항길을 배웅하는 것이 뿌듯하고 즐거운 업무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돌아보면 운전이 많이 서툴렀던 새내기 순경인 내가 순찰차와 연안구조정으로 모항 관내 해·육상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닐 수 있기까지 많은 눈물과 웃음이 서려 있는 이곳 모항!

오늘도 출항길에 나서는 어민분들께 다정히 인사를 건네며 모항의 아침을 여는 해양경찰로서의 내 삶이 아름다운 서해바다의 맛과 멋으로 더욱 충만하길 기대해 본다.

## 사 설

# 기본소득토지세법 실현돼야

최근 들어 토지 자산의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 분배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 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어 기본소득토지세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 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 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 목적의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는 어렵다.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로 토지 보유 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 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대안이다.

기본소득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 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와 해당 부처는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이중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최하위 국민 행복지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다. 행복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매번 최하위 권에 속해있는 현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35위였다. 점수로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얼마나 행복한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10점 만점에 5.8점을 줬다. 세계 1위인 핀란드가 7.9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스스로 매기는 점수라는 점에서 무엇이 한국인에게 행복이라는 감정에서 멀어지게 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고립감, 불안감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겠지만 이런 요인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겪는 일이란 점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비교해볼 부분이 경제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떨어지고 당연히 행복지수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OECD 국가 중 19위다. 우리보다 GDP가 적으면서도 행복지수는 더 높은 국가들이 많은 것이다. 건강 수명도 평균 74.2세로 OECD 4위 수준이다. 경제적 여력이나 건강 수명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에서 행복지수가 더 높은 것을 보면 반드시 경제적 요인이 행복의 절대기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주변에서 쉽게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반영된 것이 사회적 지지 항목이다. 이 항목에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 이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항목들의 순위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우울과 불안의 기저에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라는 고립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를 강요받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혼자라는 불안감이 행복감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노인빈곤율, 양극화, 과도한 노동 시간 등 행복을 끌어내리는 지표들이 많다. 우리 국민 스스로 행복의 기준이 높고 스스로의 평가에 인색한 경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회복,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 중구 문창동, 6월부터 별빛봉사단과 복지증진 활동 추진

### 복지사업 및 자원봉사 등 상호 업무 협약

중구 문창동(동장 정하광)은 6월부터 별빛봉사단(회장 김윤순)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문창동과 별빛봉사단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 복지에 집중했던 사업을 확장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폭넓고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봉사단은 협약에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50만원을 기부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별빛봉사단은 2019년에 행복누리봉사단에서 명칭을 변경해 활동 중이며, 2016년도부터 ▲어르신을 위한 치매예방 원예 힐링 교육 ▲건강한 음식 나눔 및 웃음 치료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오카리나 연주 ▲청소년을 위한 창의융합코딩 및 드론 교육 등 재능기부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윤순 회장은"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재능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하광 동장은"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필요한 협업 봉사활동을 진행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 회 장 김성구 |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 50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IONS
354-D지구
강남스타라이온스클럽
초대 회장 갑 충 로
010-9298-3771
회원을 모집합니다

강남스타라이온스클럽
부회장 위 명 환
궁중코리아
왕모델전문

강남스타라이온스 클럽과 검경합동신문사 그리고 안중근의사 평화컵조직위원회는 코로나예방운동을 적극 추진합니다.

왕모델전문 부회장 위 명 환
강감찬장군영화
귀주대첩 "왕" 배역 결정!
강감찬장군영화제작위원회
회장 최 유 진

# 코로나 이놈 썩 물렀거라!

횡단보도 설치
녹색교통문화협회 공식지정상품
다목적
국민건강지킴이
수출문의 환영

## 코로나예방홍보대 탄생!

전국 각 시도 총판을 모십니다
세계최초개발 특허출원중
항상 보면서 생각하는

높이130cm
너비40cm
색상다양가능

누구나 10분 교육시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예방홍보대로 전혀 새로운 이익창출가능
전국 모든 횡단보도 설치운동전개
녹색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운동

코로나 홍보대 크기비교

전국 각 시도 총판을 모십니다

## 떡핫도그 탄생!

세계최초 제조특허획득

떡핫도그 캐릭터

치즈가래떡볶이 + 핫도그 = 떡핫도그

올스텐
떡볶이 자동기계

부회장 위 명 환

초소형 자동기계
라면박스
2배크기

떡핫도그단면도
가래떡
팥떡 옥수수떡등
모든종류의 떡
핫도그
치즈 고구마
통팥 만두양념
볶음밥 등 모든양념
투시도
완성떡핫도그

떡핫도그 특허

제조 특허 : 제 10-2082841호

제작 동영상
www.kspo.kr

유진스포츠디자인(주)
裕鎭体育设计开发 YOUJIN SPORTS DESIGN CO.,LTD.

식품기계사업부 | 최유진 010-3260-9270
02-558-5020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27-8 강감찬빌딩 4층 전관

[대리점 문의] 010-3260-9270
010-3915-9753

포천시 총판
명디자인기획
대표 위 명 환
010 3915 9753

창원시 총판
창원떡핫도그
대표 박 지 용
010 4669 6500

보령시 총판
보령디자인기획
대표 최 창 훈
010 6202 0304

관악 총판
유진디자인기획
대표 조 재 구
010 6468 8113

울산 총판
착한어린이집
010 5564 7143